

5·18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을 중심으로

은우근(광주대)

순서

1. 글을 시작하며
2. 5·18교육의 의의와 목표
3. 5·18교육의 현황
4. 5·18교육 반성과 대안 모색

1.

글을 시작하며

“한반도 남녘에 광기어린 전체주의의 망령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역사’란 이름의 획일주의와 시대착오적인 반공지상주의이다.”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현대민주주의 사회를 위협하는 전체주의적 기획이 깔려 있다. ...역사교과서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을 줄이고 단 하나만의 해석을 강요하려는 시도’는 역사해석의 무오류성을 전제하는 것이고... 중국에는 사회 전체의 역사해석에 대한 통제를 권력을 통해 관철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 치하 소련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역사해석의 다양성이 곧 민주주의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정교과서는 전체주의의 시작이다.”

박근혜 정권은 중고등학교에서 대다수 한국사 연구자와 교육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개발을 확정했다. 그 어느 때 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역사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다.

광주 지역 대학들에서 5·18 과목을 개설하여 강의를 실시한 지 만 10년이 지났다. 전남대의 경우 2005년에 과목을 개설하여 11년 째, 광주대에서는 2009년에 개설하여 7

년째 강의가 이뤄지고 있다. 조선대의 경우, 정재호 교수의 발표를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광주대 보다 더 먼저 강의를 실시한 것으로 안다. 5·18 교육의 내용, 방법론 등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발표자는 몇 년 전에 전남대 5·18연구소에서 주관한 5·18 강의 대학 교재 개발을 위한 논의에 참여한 적이 있다. 5·18기념재단에 한동안 기획위원장/이사로서 참여한 적도 있고, 5·18 관련 주제로 몇 편의 논문도 발표했다. 가장 최근에는 2015 광주 아시아 포럼(2015..05.16)의 세션 2 <‘오월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 광주대에서 ‘5·18민주화운동과 현대 한국’이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강의했다. 이런 상황과 발표자의 경험 속에서 생긴 문제의식을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5·18 교육을 반성하는 취지에서 광주 지역 대학에서 이뤄지고 있는 5·18 수업의 현황을 간략하게 살피고 5·18 교육의 목표와 의의, 수업의 내용과 방법, 교육·연구자들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겠다. 아무쪼록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2.

5·18 교육의 의의와 목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를 전체주의적 기획으로 규정하는 위외 성명들의 지적이 아니라 해도 우리 교육은 매우 심각하게 획일화된 몰역사적인 가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것은 취업 준비 기관으로 전락한 대학의 현실에서 드러난다. 교육부는 ‘구조조정’의 미명하에 취업률과 재학율 등 무책임하고 획일적 기준에 의한 대학평가와 지원금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지식인사회를 길들이려고 기도해 왔다. ‘닥치고 경쟁’이 지배하는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실도 암담하긴 마찬가지다. 경쟁교육을 지양하고 교육을 혁신하려는 교사단체와 일부 교육감들의 노력은 쓸데없는 일로 간주되거나 심지어 불온시되고 있다. 경쟁몰입교육은 교육주체를 파편화하고 소외를 전면화시킬 뿐 아니라 학습자의 가치체계를 황폐화시키고 획일화시킴으로써 역사의식의 바람직한 형성을 방해한다.

박근혜 정권은 초기에 인문학 교육의 강화를 내세웠다가 최근 인성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인문학 교육이 본질적으로 비판적 지성의 함양과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인성교육은 일제와 유신체제, 군사독재 하에서 일관되게 강조된 수신(修身) 교육, 도덕과 국민윤리 교육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비인간적 경쟁몰입교육에 더하여, 학습자에게 지배적 가치를 내면화시킴으로써 본격적으로 체제 순응형, 기업형 인간 양성

을 위한 길들이기 교육을 시도하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여당 일각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구상을 슬며시 내놓았다. 이것은 교육과 지식·사상에 대한 지배권력의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매우 불순한 의도가 숨겨진 것으로 보인다. 더욱 한심한 것은 여기에 일부 철없는 야당의원들조차 동조했다는 것이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바로 이런 흐름의 연속선상에 있다.

맹목적인 경쟁교육에 갇힌 초중고 학교교육, 무기력한 대학 사회, 비판의식이 실종된 지식인·언론... 광복 70년이라고 하지만 참담하고 부끄럽기 그지없다. 국정원 해킹 사건이 아니라 해도 한국의 최근 교육·사회 상황은 미셸 푸코가 말한 학교, 병원, 군대, 감옥 등으로 구축된 거대한 감시사회를 방불케 한다. 얼마 전까지 정치적 담론 또는 체스추어으로써 화해가 가끔 언급되었다. 예컨대 2012년 대선 전까지 박지원과 김무성 등 여야 정치인이 민주화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화해를 운운하며 김대중과 박정희의 묘소 또는 기념관을 교차 참배하는 쇼를 연출하는 보도를 보면서 한탄을 금할 수 없었다. 또 세간에 상당히 진보적으로 알려진 학자도 5·18관련 학술 행사에서 뜬금없이 화해를 언급하는 경우를 보았다. 하지만 선부른 화해와 용서를 경계해야 한다. 반성 없는 용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참다운 화해도 불가능하다. 반성과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화해도 가짜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행위에 대한 반성과 용서와 화해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과거와의 어정쩡한 타협으로써 거짓 용서와 화해는 역사의 퇴행을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바로 이런 정치적 타협으로서 용서와 화해 때문에 한국 현대 민주주의가 질곡 속에 있다.

몇 년 전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에 5·18은 세계사에서 만날 수 있는 권력이 저지른 수많은 잔혹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했던 유명 작가의 발언도 있다. 구체적 역사적 행위를 가해-피해 관점에서 단순한 데이터로 환원해버릴 때, 역사적 고난에서 겪어야 했던 인간의 고통과 그 고통을 통한 인간 공동체의 변화와 성숙,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진보를 결코 포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은폐할 것이다. 정치권과 일부 지식인의 몰역사적인 행동과 발언은 한국 근현대 민주화 역사에 대한 추상적 이해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간 광주 지역에서 주로 선거 시기에 맞춰 광주 정신을 외쳐졌지만, 이 시대야말로 35년 전 그날 새벽 총을 놓지 않은 사람들

과 함께 하지 못한 부끄러움의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여겨진다.

1인당 국민소득은 올라갔지만, 사회적 불평등은 훨씬 심화되었다. 각종 지표에서 드러나는 교육에서의 성취 또한 전례 없이 양극화되었다. 교육시설과 기술의 현대화, 정보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역사의식, 비판적 사회의식은 오히려 무디어졌고 공동체 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초중고와 대학을 망라하여 탐욕적인 자본의 요구를 충실히 수용하고 분단체제하 억압적인 국가 권력에 순종적인 체제 내적 인간을 육성하려는 시도는 교육 자체의 실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교육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즉 인간의 총체적 위기인 것이다. 이런 사회·교육적 상황 인식 속에서 5·18 교육의 목표와 당위성이 도출되어야 한다.

역사철학적 관점에서 5·18교육의 목표를 더 생각해보자. 인간은 역사적 존재다. ‘인간’의 역사는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의미 있는’ 사건들로 구성된다. 다른 존재와 달리 인간은 이 사건들을 ‘의식’한다. 히스토리(history)가 연구를 뜻하는 그리스어 이스토리아(istoria)에서 유래했듯이 역사는 과거에 관한 탐구와 그 서술이다. 독일어로 역사는 게쉬히테(Geschichte)인데, 게쾨엔geschehen(일어나다, 생기다)의 과거분사를 명사화한 것이다. 이처럼 역사는 일어난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사실에 대한 기록은 재구성이고, 곧 반성을 의미한다.

인간은 과거를 반성하여 만들어낸 현재 속에서 살며 미래를 계획한다. 따라서 인간은 역사를 만드는(구성하는) 역사적 존재다. 인간이 아닌 존재는 이런 의미의 역사를 의식하지 못한다. 그들의 역사는 인간이 기록한다. 생명체의 진화의 역사는 스스로 만든 역사가 아니다. 역사를 만들지 못하는 존재에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오직 순간만이 있을 뿐이다. 인간이 역사를 학습하는 것은 단지 과거의 실천과 생각을 답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를 항상 새롭게 재해석하고 현재에서 미래를 주체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5·18 교육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를 형성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5·18 교육의 목표는 고난과 굴곡으로 얼룩진 우리 역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역사 안에서 공동체가 지향할 바람직한 가치를 모색하는 것이다. 5·18 교육은 민중의 고귀한 역사적 실천 속에 나타난 가치와 정신을 학습자가 깨닫고 체득함으로써 민주적 사회의식의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킬 주체 형성의 교육, 곧 교양(教養, Bildung)교육이다. 5·18 교육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억압적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민주적이고 평화적이며

공동체적인 새로운 문명을 열어갈 해방된 인간상을 형성하기 위한 인간 해방의 교육이다.

현재 5·18교육은 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 발표자 스스로 긍정적으로 대답하기 어렵다. 한편 5·18교육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자 스스로 어려운 상황에서 5·18 교육을 하고 있다는 자기만족에 빠져 역사적 사실의 전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5·18 교육을 반성하고 개선할 여지를 찾아보는 단초를 열어보고자 한다.

3.

5·18교육의 현황-전남대와 광주대의 경우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발표자는 결코 대학에서 수업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할 담당 교수의 수업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다. 이 발표는 어디까지나 5·18 관련 강의의 개선을 위한 일념, 오직 교육과 연구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다. 아울러 저 또한 마찬가지로 실제 강의는 정해진 수업계획서와 달리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남대 강의계획서에 대한 대략적인 분석과 발표자의 광주대에서의 강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다. 전남대에서는 <5. 18, 그리고 역사>를 주 교재로 삼고 있으며, 1, 2학기 도합 약 200~300여명이 수강하고 있다. 광주대에서는 매년 1학기에 개설되며 약 40명 내외의 학생이 수강한다. 과목 이름은 전남대의 경우, '5·18민주항쟁과 민주·인권', 광주대는 '5·18민주화운동과 현대 한국'이다. 전남대의 2013~2015년 강의계획서를 대략 살펴보면, 전체 15주 가운데 4~7주차 까지 5·18의 역사적 배경을 다루고 있다. 이후 3주 정도 1980년 당시 5월항쟁의 진행을 학습하고, 5·18과 한국 민주화운동, 5·18 이후 기억투쟁(5월운동), 5·18이 해외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5·18의 사상적 고찰 등에 1주씩 할애하고 있다. 강의계획서 상으로 볼 때 전남대의 5·18 수업은 5·18의 시간적 진행에 따른 역사적 상황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주 교재인 <5·18 그리고 역사>의 순서와 거의 일치한다. 또 5·18관련 행사에 자원봉사와 현장 답사 등을 포함하여 학습자의 체험을 유도하고 있다. 첨부한 ①과 ② 두 강의계획서에 차이가 있다면,

②에서는 5·18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근대초기에서 박정희 시대까지의 학습에 한 학기 수업의 절반 정도를 할애하는 것이다.

<5·18 그리고 역사>(2008)의 구성과 저자

제1부 5·18항쟁의 역사와 영향

제1장 5·18항쟁의 배경/최영태 (사학)

제2장 5·18항쟁의 전개 과정/정재호 (정치학)

제3장 5·18항쟁이 한국 민주화에 미친 영향/조정관 (정치학)

제4장 5·18항쟁과 1980년대 아시아 민주화운동/신일섭 (사학)

제2부 5·18운동의 문화·예술

제5장 5월운동의 진전과 그 성과/나간채 (사회학)

제6장 5월항쟁과 문화운동/배종민·정명중 (미술사, 문학)

제3부 5·18항쟁의 정신

제7장 그들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의 나라로/김상봉 (철학)

제8장 서로주체의 형성사로서 동학농민전쟁과 5·18항쟁/박구용 (철학)

이 책은 다양한 인문학 전공자들이 참여하여 만들었다.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인 최영태 교수에 의하면 이 책은 “개별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어온 성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교양서로서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서술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각 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별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광주대의 경우 주 교재를 단행본이 아니라 5·18 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의 구술 자료와 몇 논문을 엮어서 사용한다.

광주대 교재 구성과 저자

- 1장 '민주화에 교수들도 큰 역할을 했지/송기숙 구술
- 2장 기념은 계승이고 계승은 교육으로 해야지/윤한봉 구술
- 3장 광주의 아픔, 진실/윤공희
- 4장 분노 보다는 슬픔이/김성용
- 5장 사막의 체험/김성용
- 6장 오월민중항쟁을 돌아보며/좌담, 윤공희 외 7인
- 7장 역사 속의 광주항쟁/조지 카치아피카스
- 8장 5·18민주항쟁과 글로벌 민주주의/서유경
- 9장 5·18에 관한 의미구성의 변화과정과 지역사회의 변화/김두식
- 10장 5·18의 국제적 배경-한미관계를 중심으로/김동택
- 11장 폭력과 사랑의 변증법;5·18민중항쟁과 절대 공동체의 등장/최정운
- 12장 부끄러움 또는 질문하는 역사의식/은우근

광주대 교재에서 위의 글들을 엮은 의도와 목표를 설명하겠다. 1장과 2장에서 5·18과 관련된 중심 인물들인 송기숙과 윤한봉의 구술을 통해 5·18의 배경을 이해하고자 한다. 구술이므로 학생들이 논문 보다 심리적으로 더 편하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이때 '다큐멘터리 5·18'(광주MBC 오창규 PD 제작)을 시청한다. 3장~6장에서 5·18의 전개 과정을 주로 학습한다. 이 때 '푸른 눈의 목격자'(KBS)를 시청한다. 7장에서 파리 코뮌과의 비교를 통해 5·18의 특징을 이해한다. 8장에서 파리 68혁명 그리고 2002년 월드컵 공동체와의 비교를 통해 5·18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 때 월드컵 공동체와 5·18공동체에 대한 저자의 관점을 비판하도록 요구한다. 9장에서 5·18 참여자의 계급적 입장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5·18의 의미구성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것이 오늘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생각해보도록 한다. 10장에서 5·18의 국제적 배경, 즉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서 5·18과 현대 한국을 이해하도록 한다. 11장에서 5·18의 전개를 음모론에 대한 비판과 민중의 공동체 형성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 12장에서 5·18민중의 의식의 변화, 최정운 교수의 절대 공동체에 대한 보완적 해석, 시민군의 무장의 의미, 부끄러움의 정서를 통한 5·18

의 현재적 의의와 가치를 중심 주제로 삼아 한 학기의 학습을 마무리 한다.

광주대 수업에서는 동영상과 영화 등 시청각 자료를 많이 활용한다. 또 여러 다큐멘터리와 영화, 연극(5·18 기념행사 기간 동안) 등을 시청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두 편 외에 ‘기억을 기억하라’(양선희, 다큐코리아)와 ‘임을 위한 행진곡’(광주MBC, 오창규) 등의 다큐를 이용한다. 전자는 수십명의 항쟁 주체들의 인터뷰를, 후자는 5·18 이후 민중가요를 엮은 것이다. 영화 ‘화려한 휴가’(장선우)와 ‘꽃잎’(김지훈)은 일부의 내용을 수업 주제와 관련지어 인용한다. 또 5·18 기념행사 기간에 ‘모란꽃’, ‘금희의 오월’, ‘청실홍실’ 등의 연극을 관람하고 토론한다. 원자료와 시청각 자료 및 연극을 이용하는 것은 이것들이 이론적으로 서술된 논문 보다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5·18의 역사적 배경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5·18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 과정에 최소한 1/2 이상의 수업 시간을 사용한다. 발표자가 강의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으로써 5·18의 현재적 의의와 가치를 이해하고자 하고 그에 대한 질문을 학습 참여자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4.

5·18 교육, 반성과 대안 모색

강의계획서를 통해 대략 파악한 현황을 토대로 5·18 수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반성을 시도하고 대안을 논의하겠다.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① 우선 역사 서술적 이론 위주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황과 사건의 전개 중심으로 구성된 수업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역사 고찰에서 이런 방식이 필수적이지만, 시간적 순서에 따른 사건 중심으로 편중될 때, 과거 회고적 고찰이 되어 현재적 문제의식이 실종될 수 있다. 또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예컨대 전두환 군부독재세력의 야심과 그 대리자로서 공수부대의 잔혹한 만행과 대비되는 시민들의 영웅적 행위에 대한 판박이의 미화(美化)는 오히려 바람직

한 역사 인식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사실에 대한 교육만으로는 역사적 주체,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주체의 각성이라는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효과도 오히려 기대할 수 없다. 5월항쟁 당시 역사적 상황 속에서 5월민중의 구체적 실천이 지니는 의미를 학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5월민중항쟁의 다양한 실천의 의미와 해석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필요하고 그 논의 결과의 교육적 활용을 궁리해야 한다.

② 5·18교육은 당연히 5·18 전후의 한국 현대사를 포함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학습과정에서 5월항쟁의 배경으로서 4·19, 5.16, 유신독재, 부마항쟁, 6월항쟁 등에 대한 언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다른 민주화운동과 구별하는 가운데 5·18의 구체적 실천, 그 실천의 독특한 의미와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5.18민중의 장엄한 실천의 고유한 의의를 인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5·18과 다른 변혁운동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5·18은 동학혁명과 3·1운동 이후 민중의 에너지가 가장 대규모로 분출된 변혁운동이다. 참여 형태 상, 지식계급과 기층 민중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5·18은 동학혁명 및 3·1운동과 상당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운동의 결과에서도 세 변혁운동이 모두 당대에 처참한 좌절로 끝났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5·18은 동학혁명과 3.1운동을 잇는 민중의 집단적 공동체적 실천이었다. 물론 세 경우 모두 그것은 처참한 패배로 귀결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변혁운동에서 기층 민중이 지식인과 연대하여 5·18처럼 헌신적으로 집단적으로 참여한 적이 없었다. 아시다시피 4·19는 학생 계층이 주도했고 6월항쟁은 대학가의 민주화운동에 이른바 벡타이 부대로 불리는 중간계층이 가세했다. 이 두 운동은 지배권력을 교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5·18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와 연관된다. 발표자는 5·18은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분단체제의 산물인 장기간의 군사독재를 극복하기 위해 바쳐진 민중의 희생이었다고 간주한다. 즉, 5월민중항쟁은 분단체제 한반도에서 인간 해방을 위해 생명을 바쳐 드린 민중의 ‘제사’였다.

③ 5·18은 매우 다양한 민중적 실천과 각성이 이루어진 운동이다. 예컨대, 홀로코스트, 킬링필드 등에서는 5·18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 학살이 이루어졌지만, 학살에 대한 5·18민중의 대응은 달랐다. 하지만 학살에 대한 대응으로서 시민군의 무장에 대한 해석 등 여러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평가를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어렵다. 발표자

는 5월민중항쟁에서 시민군의 무장의 불가피성과 무장의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지만, 무장에 대한 과도한 평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무장 자체보다도 오히려 무장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억압적 분단체제의 관리자로서 국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의 변화에 주목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④ 5·18교육은 당시에 이루어진 민중적 인간성의 발견과 고양을 포착해야 한다. 역사의 발전은 항상 인간의 성숙과 발전을 동반한다. 5월민중항쟁의 실천 과정에서 새로운 인간형이 출현했다. 역사와 공동체 앞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인간이 출현했다. 5월민중항쟁은 민중의 새로운 역사적 각성이 동반된 매우 전형적인 실천이었다. 역사의식으로 각성한 인간이 집단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 부끄러움은 반성의식, 즉 역사와 이웃 앞에선 자신에 대한 질문이다. 그 인간은 한 때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생명공동체’를 이룩했다가 패배했다. 하지만 죽어간 자들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책감 속에서 성숙하여 다시 하나된 민중의 힘이 5·18 이후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5월민중이 간직한 질문은 과거 속에서 나왔지만 현재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과 직결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다. 지금 그 인간과 그의 질문은 어디에 있는가? 5월민중항쟁을 통해 등장한 역사적 인간이 추구한 아름다움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추구한 아름다운 세계의 이상은 오늘 충분히 구현되고 있는가?

⑤ 5·18민중의 역사적 실천을 가치로 재구성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5월민중항쟁의 정신 또는 실천 덕목, 그 현대적 의미(현재적 의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5·18의 핵심 가치와 실천 덕목에 대한 정의와 그 근거, 그 가치의 구체적 실천 사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5월민중의 바램과 좌절, 처참한 좌절이 어떻게 새로운 운동의 동력으로 부활했는가를 논해야 한다. 부끄러움, 저항, 나눔, 자발성, 자치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최정운 교수 등의 연구를 많이 참조할 수 있다고 본다. 발표자는 ‘참여, 나눔, 연대의 생명공동체’로 5월민중의 실천 덕목을 제시한 바가 있다.

가치-사건-인물(개인 뿐 아니라 집단까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⑥ 이 과정에서 5·18의 역사적 성과 뿐 아니라, 역사적 실천의 ‘한계’도 물어야 한다. 한계에서 그것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과 과제에 대한 물음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당시 5·18민중의 투쟁의 한계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비롯한 것인가, 우리(5월민중)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또는 지금 그것을 극복한 것인가?

5·18의 집단적 실천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연구는 5·18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 가라는 질문과 필연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 5·18은 분단체제의 폭력적 대리자로서 군부독재와 맨주먹 민중의 정면대결이었다. 그 분단체제는 오늘도 여전히 한국 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민중은 분단체제 관리자로서 절대적인 국가의 무력을 상대화시켰다. 민중은 한 때 결국 그 무력이 내뿜는 죽음의 공포에 굴복했던 것 같지만 결코 완전히 굴복하진 않았다. ‘부끄러운 자들의 연대’를 통해 다시 일어섰다.

⑦ 5월민중항쟁은 풍부한 story를 가진 사건이다. 그 사례들을 잘 연구하여 교육 참여자의 조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5·18 아카이브 센터와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수업 방법에 대하여>

개별 교수들의 수업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대학간 협력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교재 중심적, 이론에 치중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여 역사 체험적인 학습방법을 보다 더 많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 5·18을 상징할 수 있는 가치와 역사적 사건 또는 민중적 체험을 연결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하면 교육적 효과가 커질 것이다. 크게 두 가지 분야의 협력이 가능하다.

○ 수업 준비

① 연구 및 교재 개발

새 교재 개발을 포함한 수업 콘텐츠 제작 교재, 동영상 등 개발

② 공동 커리큘럼의 개발과 도입 가능 여부 검토

③ 수업 경험의 교류-연중 2차례 교육·연구자 세미나

○ 수업 과정

• 부분적 공동수업 또는 학기 당 1~2회 교차 수업

① 연극, 영화, 다큐, 5·18 관련 전시회 등 공동 관람 후 공동 발표

② 5·18기념행사 기간 중 합동 수업-5·18학술행사 참관, 5·18인권상 수상식 참여.

③ 합동 초청 강의-강사비 5·18재단 지원(?)

• 합동 발표

① 5·18기념행사 주간에 합동 발표-5·18 현장 조사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조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학기 말 대학별로 1팀씩 조사 결과 발표

② 기말 합동 발표- 한 학기의 활동, 수업, 조사 등을 동영상, 사진, 글 등으로 종합하여 발표, 시상도 고려

③ 초중고 교육과의 연계 검토-교사들과의 협업 가능. 고교생과 대학생의 1~2차례 합동 수업의 의의와 가능 여부 검토

5·18 수업의 기획을 위해 5·18 수업 참여 경험이 있는 교육자들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위한 세미나와 학술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끝>

<참고자료1> 전남대 강의계획서 ① (2015년 1학기)

강의목표 : 본 강의는 5·18광주민주항쟁을 이해하기 위하여 설강되었다. 5·18광주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다. 이렇듯 한국현대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5·18광주민주항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쟁의 발단이 되었던 1970년대 유신체제부터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항쟁의 진행과 이후 우리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국립묘지 답사 및 5·18항쟁 관련 행사 참여를 통해서 좀 더 쉽게 항쟁에 접근하고자 한다.

주별 강의 계획

제 1주	오리엔테이션	제 9주	5·18국립묘지 답사
제 2주	항쟁의 배경(유신체제1)	제 10주	5·18민주항쟁과 1980년대1
제 3주	항쟁의 배경(유신체제2)	제 11주	5·18민주항쟁과 1980년대2
제 4주	1980년 봄 민주화운동	제 12주	5·18민주항쟁의 영향(민주화운동)
제 5주	5·18민주항쟁1	제 13주	5·18민주항쟁(문화)
제 6주	5·18민주항쟁2	제 14주	총괄(토론과 정리)

주
제 7주 5·18민주항쟁3 제 15 기말고사
주

제 8주 중간고사

수업태도 : 10%(강의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할 것). 5·18관련 행사에 자원봉사 등의 참여자에게 부여할 것.

<참고자료 2> 전남대 강의계획서 ② (2015학년도 1학기)

5·18 항쟁과 민주·인권

주 3시간

수업소개

1. 1980년 5월의 광주항쟁은 이후 남한 역사의 진행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예컨대, 1980년대 사회운동과 정치적 민주화는 물론이고 1980년대 문화 역시 광주항쟁의 역사적 유산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것이 광주의 5월항쟁을 한국현대사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고, 또 본 수업의 계기점이다.

2. 본 수업은 다음과 같은 것에 주목하도록 하겠다.

1) 5월항쟁의 역사적 배경에 주목한다.

2) 5월항쟁의 진행과 확산 과정, 항쟁주도자의 의식과 실천, 대중의 참가에 주목한다.

3) 5월항쟁의 결과와 역사적 영향에 주목한다.

4) 5월항쟁을 둘러싼 ‘사후(事後)의 역사’에 주목한다.

3. 수업 진행: 강의실 강의와 시각자료 자료의 감상과 논의, 또 현장 답사를 병행한다.

수업자료

최영태 외 , <<5. 18, 그리고 역사>>, 길 출판사, 2008

나간채 역음,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 연구>>, 전남대5·18연구소, 1997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 <광주5월민중항쟁>, 풀빛, 1990

임종명, <5월항쟁의 대중적 참여와 그 계기 및 의식성> <<역사학연구>>32집, 2008

임종명, <표상(表象)과 권력: 5월광주항쟁의 전용(轉用)> <<역사학연구>>29집, 2007

강의진행

1주: 강의 소개

2주: 근대 초기 광주. 전남 지역

3주: 식민시기 광주. 전남 지역

4주: 해방 직후 광주. 전남 지역

5주: 한국전쟁 직후 광주. 전남 지역

6주: 박정희 정권의 경제 개발과 광주. 전남 지역

7주: 박정희 정권의 통치 체제와 광주. 전남 지역

8주: 중간고사

9주: 1980년 봄 민주화운동

10주: 5월항쟁의 전개과정(1): 항쟁의 출발

11주: 5월항쟁의 전개과정(2): 항쟁의 확산

12주: 5월항쟁의 전개과정(3): 항쟁의 진압

13주: 5월항쟁과 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

14주: 5월항쟁과 80년대 문화(1): 항쟁의 기억과 재현, 그리고 문화적 영향

15주 : 기말고사

<5.18 교육. 연구 학술 집담회> 발표문

문학을 통한 5·18수업,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영의(전남대 국문과)

1. 5·18과 문학

5·18항쟁 이후의 5·18운동은 결국 기억투쟁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동안 사회과학의 관련 연구는 괄목할만한 결과를 제출했다. 그런데 가령 5·18항쟁 당시의 죽음과 죽음에 관하여 “오후 1시경 갑자기 도청 옥상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군은 금남로에 운집해 있는 시위 군중을 향해 일제히 발포하기 시작했다. 분수대 주변 병력뿐만 아니라, 건물 옥상에 배치된 저격수들까지 동시에 사격을 했다. 그들은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쏘았다. 일순간 금남로 거리는 텅 비었고 정적에 휩싸였다.”는 기록을 읽을 때와 “이 낯선 덩불숲 아래에서, 썩어가는 수많은 몸들 사이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자 나는 무서워졌어. (중략) 더 무서워진 건 다음 순간이었어. 두려움을 견디며 나는 누나를 생각했어. ……(그러나) 누나는 죽었어. 나보다 먼저 죽었어. 혀도 목소리도 없이 신음하려고 하자, 눈물 대신 피와 진물이 새어나오는 통증이 느껴졌어.” 라는 소설 내 인물의 진술을 들을 때, 즉 소설을 읽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다를까?

그러니까 필자는 이 글에서 우선, 문학의 작용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문학의 작용은 인간 역사나 인간 사상의 형성 및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것은 문학의 언어가 정서적 소통을 목적으로 한 까닭에 그러하다. 무엇보다 문학 작품은 창작된 허구의 세계를 통해 인간의 정서를 탐구한다. 예컨대 공포예술을 감상할 때 잔혹한 장면, 고통에 몸부림치는 인물이나 끔찍한 장면은 그 자체로 독자의 감정을 자극한다. 쇠뿔이나 전기뿔으로 잘려나가는 신체는 손가락을 베여본 경험과 같은 미약하지만 유사한 경험으로 인해 자리하게 된 고통의 상황과 고통의 정도를 환기하게 되며, “뿔 : 연필 깎기 칼 = 끔찍한 고통 : 나의 고통”이라는 등식으로 되어 증폭된다. 이렇게 증폭된 경험을 통해 끔찍한 고통에 공명하게 되는 것이며, 공감하는 정서적 능력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공명(共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사한 정서가 환기되는 과정을 말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5월과 관련된 문학읽기를 통해 그날에 죽어갔던 혹은 살아남은 사람들과 공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5월의 의미를 죽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 숨 쉬는 현재적 의미로 호명하는 매우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과 연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5·18문학 읽기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의 정서의 순화 내지 바람직한 정서적 태도의 함양에도 일정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확인 할 수 있다. 이렇게 문학읽기는 자아와 세계의 부단한 교호작용을 통해 우리의 정신을 발달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들의 자아가 삶의 주체의 자리에 서도록 해준다. 따라서 문학 읽기의 궁극적 목적은 문화적 실천을 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을 형성해내는 데 있다. 무엇보다 문학읽기는 읽는 주체인 자아와 텍스트로서의 세계가 상호작용하는 매우 독특한 경험 공간이다. 그 공간에서 시민들은 서로의 '피'를 나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2. 5·18과 문학교육

문학의 의도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예술불가지론에 귀결된다. 이에 따르면, 문학교육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비의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문학은 교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도 (교육이) 필요하다. 문학교육은 문학을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다. 문학교육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다른 예술장르와는 다른 문학의 속성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무엇보다 문학의 매개체가 언어라는 것,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사회성·역사성과는 결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은 다른 예술 장르, 이를테면 음악이나 미술과는 달리 보다 진지하게 삶과 역사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장르라 할 수 있다.(물론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여타 예술 장르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

문학이 깨달음과 관련되는 방식은 대체로 두 가지다. 첫째, 작가가 깨달음의 경험을 작품 속에 담는 쓰기와 표현 차원의 것이다. 둘째, 독자가 작품을 읽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경험하는 읽기와 수용 차원의 것이다. 문학교육은 둘째를 지향한다. 그런데 둘째는 첫째가 뒷받침될 때 더 원활해진다.

다시 말하지만 문학의 기능은 즐거움, 깨우침, 감동이다. 문학은 풍부한 정서, 지적 충족감과 함께 창조적 상상력을 길러준다. 삶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도록 암시적·상징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문학이다. 문학을 통한 학습의 내용은 작가의 경험세계이다. 이 경험 세계는 작가의 직접 체험뿐만 아니라 대상을 통해 환기된 작가의 감상까지도 포함된다. 문학작품 읽기를 통해 작가가 겪었던 '슬픔', '기쁨', '두려움' 등의 경험을 독자가 간접 경험하는 일은 매우 흔하다.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도 문학을 통해 학습된다. 문학은 섬세한 감정의 결을 다루는 영역이어서 감정을 학습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고 그 학습 결과

는 일상에 바로 적용된다. 문학적 정서나 표현에 익숙해지면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렵거나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정서들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5·18문학작품을 활용한 (공식적인)교육이 전무하다는 데 있다. 필자의 경우 전남대와 조선대 국문과에서 전공과 교양수업을 담당하면서 한국현대문학개론, 작가작품론, 현대소설론, 한국문학의 이해(와 감상) 등의 수업을 해왔다. 한국문학은 한국역사의 전개와 그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80년대 문학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필자의 기왕의 관련 평문들을 활용하여 5·18소설들의 전개양상에 관해 수업하였다. 그러나 15주차 수업에서 2주차 이상을 5·18문학으로만 진행하기에는 학교 당국과 학생들의 눈치가 보여서 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간혹 교수수업평가에 “교수님이 너무 정치적이다.”라거나 “5·18문학에 지나치게 많은 할애를 한다.”와 같은 학생들이 남긴 글을 볼 때마다 만감이 교차한다.

어쨌거나 필자는 5·18문학작품을 활용한 5·18교육의 필요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는 언급한 셈이다. 남은 과제는 어떤 작품들을 선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중·고교 혹은 대학과정이라는 교수대상을 특정하여 논하기보다는 개략적인 제안에 한정하고자 한다. 또한 문학의 여러 장르 중에서도 소설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3. 5·18문학교육의 방법론

우선적으로 5·18소설의 전개양상에 대한 교수자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5·18소설은 약 100여 편 가량 되는데, 그것을 시기적으로 분류하다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을 보인다. 즉,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5·18소설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은 크게 보아 역사적 사실의 재현이라는 관점과 오월의 의미를 어떻게 미학적으로 재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기억의 현재적 의미와 관련하여 오월문학사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글들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 다음 단계의 연구로는 민중만의 항쟁이 아닌 시민 주체의 관점에서 지식인의 역할을 논하거나, 지배담론에 대항했던 5월 문학에서 여성의 배제라는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쟁의 주체를 집합감정으로 해석하는 등의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18소설들의 대부분은 우선적으로 그 참혹한 죽음/죽음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것이 웬 날벼락입니까?”라는 절규 끝에, “금남로 일대는 완전한 사냥터였다. 광기에 눈이 뒤집힌 채 피를 찾아 쫓고 몰아대는 짐승의 사냥터”였으며, 따라서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폭력은 허락된 카니발”이었다고 답한다. 광주를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군부의 권력 장악 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것이라는 관점을 보이는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 곧, 사건의 시발과 진행과 종말까지의 그 열흘 동안, 사람들의 행위를—좀 더 정확하게는 행위의 주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대부분의 5·18소설들은 그것을 ‘윤리적 분노’에서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짧은 글에서 각 단계의 작품들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실제로 5·18작품의 목록을 만들고 작품들을 수집하는 일은 한 두 사람이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숙지한 가운데 5·18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별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철우 소설 『봄날』과 정찬 소설 『광야』, 문순태 소설 『그들의 새벽』, 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 정도의 장편소설이 5·18을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좋은 수업자료일 것이다. 그러나 역시 분량이 많은 장편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읽게 하느냐의 문제가 과제다. 가장 좋은 수업 방법은 우선적으로 관련 작품을 학생들이 읽어 오게 한 다음 그것의 내용과 의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수업현실에서는 그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작품목록과 함께 관련 평문의 원문을 제공하여 작품의 이해를 도와주는 것, 수업에서 적절한 질문과 피드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 다음은 논제를 발견해서 토론 수업을 진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앞에서 제시한 소설을 읽고(특히 『광야』와 같은 작품이 적절할 것인데) 끝까지 무기를 들고 저항을 했어야 했는지, 아니면 무기를 반납하고 수습에 들어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등을 따져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5·18항쟁의 역사적 의의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오월교육과 체험학습

임광호
(대자중학교 교사/cham1964@hanmail.net)


1. 오월교육의 흐름

과거	현재	미래
사실&가치	해석(해체&복원·재구성)	사회참여활동
역사이해	역사적 사고력	역사의식
역사교육	문화예술교육	민주시민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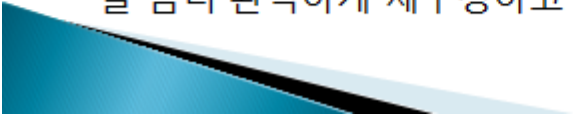
2. 체험학습?

- ❖ 체험(體驗) : 몸으로 경험함 또는 경험
 -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 답사, 견학, 인터뷰, 조사, 관찰, 미적 체험

 - ❖ 학습(學習) : 배우고 익힘
 - 왜 배우나? : 나와 의 '관계'
 - 배워서 뭐하지? : 내 삶의 의미 '성찰'

 - ❖ 체험학습 : 몸의 경험을 통한 배움
몸으로 익히는 배움
- 

3. 체험학습의 목적

- 1) 학습 공간의 확장
 - : '그 곳에서 보니 비로소 보이더라'
 - 전체적인 사건의 전개과정 속에서 장소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려 함
 -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서의 장소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려 함
 - 장소-사건-행위의 상관성들의 파악을 통해 사실을 좀더 완벽하게 재구성하고 이해하려고 함
- 


2) '관계'의 파악

3) 종합, 분석, 추리, 비판적 사고 능력의 함양

4) 주도적 학습자 역할



4. 체험학습 과정

- ❖ 교육과정 분석
 - ❖ 목표 설정
 - ❖ 교육내용 선정과 조직
 - ❖ 시기
 - ❖ 장소 선정
 - ❖ 현장답사
 - ❖ 구체적인 프로그램 작성
 - ❖ 수업안 작성
 - ❖ 체험학습 실시
 - ❖ 평가
- 

4-1. 교육 내용

- 5.18민주화운동 전개 과정?
 - 시민군의 등장과 자치공동체 형성?
 - 계엄군의 잔학상과 학살의 현장?
 - ‘주먹밥’과 ‘광주공동체’의 형성?
 - 들불야학과 7인의 열사?
- ▶ 교육 내용의 선정에 따라 체험학습의 내용 변화

4-2. 시기

- 교육과정 운영 전 - 중간 - 종료 후

“아카시아꽃이 흐드러지게 필 무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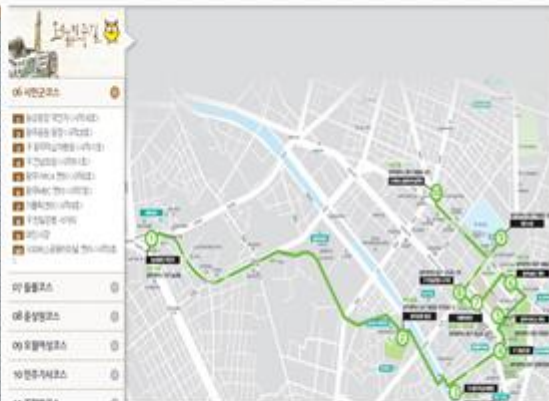


4-3. 장소

- 교육 내용에 따른 장소 선정 변화
- 현재 광주시내 관련 사적지는 27개
 - ✓ 전남대 정문 : 최초 총돌, 항쟁의 시작
 - ✓ 도청 일원 : 항쟁의 중심지, 최후 항쟁지
 - ✓ 5.18자유공원
 - ✓ 망월 묘역과 5.18국립민주묘지
-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 사실의 재구성을 통한 스토리텔링

오월길

번호	사적지명	비고
1호	전남대학교 본관	
2호	광주역 동상	
3호	우.시정연구소(501호)	현 광주정보문화사
4호	광남동	
5호	우.전남도청 본관	5-1호 ~ 5-4호 참고
5-1호	우.전남도청	현 국립5.18민주묘지(501호) 501호지
5-2호	우.5.18민주묘지	
5-3호	광주 YMCA 빌딩	
5-4호	광주 YMCA 빌딩	
6호	우.광주486이전본	전남대학교 251호
7호	북우서점 옛자리	광복로(현)의 북쪽
8호	전남대학교 운동장	
9호	광주 기념물본	
10호	우.전남대병원	현 전남대학교 병원
11호	조선대학교	
12호	충정교	
13호	5.18민주묘지	
14호	광복로 옛길의 특색지	홍익사(현)의 뒤
15호	광복로 옛길의 특색지	광복로 1번출구
16호	광복로 옛길	
17호	망월묘역 옛길	광주-486 문화전시관 앞
18호	광복로 옛길	
19호	광복로 옛길의 특색지	현 광복로
20호	광복로 옛길의 특색지	현 광복로
21호	우.국립5.18민주묘지	현 전남대학교
22호	망월묘역	
23호	5.18 기념물본	
24호	5.18 기념물본	
25호	5.18 기념물본	
26호	5.18 기념물본	
27호	5.18 기념물본	



들뜸코스, 민주기사코스
시민군코스, 윤상원코스
오월여성코스, 주먹밥코스

시민군코스

4-4. 프로그램

생사의 갈림길	(구)전남도청	민주성회. 항쟁 마지막 날의 '선택'. 남을 것인가, 나갈 것인가	국가 태극기 국가폭력 공동체 자유의지 '상황 속 인간'	'다큐 5.18' '기억을 기억하라' '화려한 휴가' '선생님과 함께 하는 오월이야기' 당시 상황 녹음 사진
산 자	5.18자유 공원	'신념'과 '가치'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억압과 폭력. 공포.	영창, 주먹밥, 법정체험 증언, 상황극
죽은 자	망월묘역 5.18국립 민주묘지	'사연' 내 삶의 의미로 내면화	선택 삶의 의미	목념과 헌화 묘비명 적기 사연 알아보기 김남주시인 육성 시 낭독, 향
*시공간의 한계 극복 : '감각'에 호소 : '공감'과 '온정', '감정이입'과 '동일시'				

5. 체험 학습 사례



구 전남도청 옥상 답사



망월묘역 참배



5.18자유공원 내 법정에서 시민군 증언 청취

6. 평가 : 학습자의 내면을 어떻게 드러내게 할 것인가



오월 상황극



모노드라마



다큐영상 제작



영상 제작



협동화



만화



마인드포스터



포토에세이



만화

5.18교육 방법과 교과교재 활용에 대한 단견

-청소년교육 교재활용을 중심으로-

김 홍 길(전남대학교)

1. 5.18 교육은 인간을 주체로 하는 인간화과정

5.18교육의 특징은 아직 살아있는 현대사에 대한 수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5.18세대는 5.18발발 35주년이 지난 현재에도 우리 사회에서 당당한 주역으로 살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의 주역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역사는 자아와 타아의 역사적 투쟁이기도 하다. 1980년대 이후 5.18항쟁은 하나의 민주화운동에 있어 살아있는 교육장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지식인들은 5월의 학살문제를 외면하는 것에 양심적인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었고, 청년학생들도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5월의 역사를 찾다보면 자연스럽게 군부독재의 야만성을 폭로하게 되고 그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인권과 민주와 생명의 고귀함을 일깨우게 되었다.

2. 오늘날 5월 교육은 과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5.18교육은 현재 근현대사를 전공하는 사회과학분야, 정치학, 사회학, 철학, 법학, 경제학, 윤리학, 교육학 등 사범학교 계열의 많은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연구대상이 되어왔고, 대학교육 및 민주화교육의 장에서 활용되어왔다. 이런 면에서 5.18교육은 시민만들기의 일환이다. 그런데 과연 5.18교육은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그 대상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일단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다. 현재의 대학생들도 대부분 1990년대 중반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다. 즉 5.18항쟁이 일어난지 15년에서 20년이 지난 이후에 자란 세대들이다. 이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절한 강의자료와 강의 기법, 강의를 위해 활용되어야 할 좋은 교재의 발간은 매우 중요하다. 5월항쟁이 과연 무엇을 위한 항쟁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5월항쟁에 대한 교육

자들의 자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도 연구해야 되는 시점에 있는 것이다. 5.18은 하나의 역사가 되었지만, 기억과 체험을 통해 전해지는 지식과 달리, 오늘날의 학생세대들에게는 ‘구술과 전승’이 오히려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 구술이야 말로 생생한 언어를 통한 역사적 증언이지만, 어떻게 이를 적절하게 엮어야 할지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 다양한 형태 수업 진행

근현대사 관련 모든 과목에서 예외없이 5.18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수년전까지만 해도 5월 수업은 역사를 알리는데 급급했다. 왜냐하면 5.18의 진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이다. ‘진실투쟁’의 하나로서 5.18교육은 그런 의미에서 많은 교육자들이 겪는 감정선 즉 ‘비접함’, ‘외면’, ‘체념’, ‘간절함’, ‘분노’, ‘한’, ‘안타까움’, ‘고통’, ‘슬픔’, ‘상실’과 같은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4. ‘감정’의 문제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존재한다.

교육을 통한 ‘감정이입’은 때로는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흥’과 ‘공감’이 어울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은 ‘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과 ‘그저 교육을 받는 사람’의 사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한다. 5.18교육의 주체들은 그 대상마다 심리적 상태가 다르다. 역사공부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부터, 학점 취득에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학생들까지 그 분포가 다양하다. 그 때문에 이들 학생들을 교육의 마당에서 서로주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마주침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저 ‘지식의 전달자’와 같은 피동적인 방식의 대응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5. 학생들의 태도 인식

5.18교육을 1학기 내내 받는 학생들과 1회 계기수업을 통해 받는 학생들의 태도는 다르다. 5.18교육의 대상자로서 학생들 사이에도 지역차나 세대차가 존재한다. 물론 5월문제가 처음부터 향토색을 가진 것은 아니다.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진행한 5월민주학교의 경우에는 2015년의 경우 지난 4월에서 9월까지 전국의 15개 지역에 41개 학교 초

중등생을 대상으로 206학급에 40일, 참여한 분들은 61명이 참여했다. 전체 수강생은 5,068명이었다. 이 중에서 부산, 경남, 충남, 경기도 등도 포함되었다. 그런데 전북지역의 경우에도 5.18민주시민교실을 위해 학생들을 만나면 전남인접 도시와 충북인접 도시의 학생들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부산경남지역에서는 확실히 호불호가 극심하게 갈리는 경우를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학생들의 차이이기 보다는 부모세대 혹은 지역여론에서의 무관심과도 관련이 있다. 5월항쟁은 발발한 이후 수십년동안 수없이 왜곡되고 폄하되는 과정과 싸워왔다. 5.18에 대한 왜곡된 인식, 5월문제에 대한 사회적 피로감과 관련이 있으며, 5.18문제에 대한 왜곡된 언론과, 사회적 편견이 반복해서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다. 5월항쟁에서 폭력의 주체는 신군부였고, 광주시민들의 항쟁은 무모한 폭력이 아니라 이타적인 정의감에 기초한 저항이었음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6. 5.18 교육 참된 목적

5.18교육은 강한 임팩트를 남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서적으로 민감한 초등학교 고학년들이나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긍정의 에너지’와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5.18교육은 ‘시민의 탄생’을 알리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민만들기’를 하는 것이다. 교육은 편견을 넘어서는 설득이다. 제한된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려는 몰입을 넘어서, 종종 ‘서로 말해보는 교육’이 필요하다. 5.18교육을 통해 특정인물을 조명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5월 세대는 한국사회의 당면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이 적지 않으며, 아직도 5월의 역사는 현재진행형이다. 5월을 기반으로 민주, 평화, 통일과 생명의 고귀함을 일깨우고, 민족을 위해 희생했던 이름없는 이들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5.18 교육자들의 유쾌하고 발랄한 수업을 기대한다.

<5.18 교육. 연구 학술 집담회> 토론문

종합적인 플랜이 있어야 한다!

남궁 협(동신대)

역사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어쩔 수 없는 망각으로부터 사실과 의미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역사교육은 기억과 망각의 교차 속에서 관점과 내용을 선택하여 전달하는 가장 현실적인 기억장치이다. 이때 우리는 흔히 기억된 것들 중에서 선택하기 마

런인데 문제는 점점 망각돼 가는 역사라면 그만큼 망각 속으로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5.18민중항쟁의 역사가 그러한 형국을 보이고 있다. 한국 국민들 중에서 1980년 5.18 당시 10세 이상으로 지금까지 생존하여 5.18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고작 2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기억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기억을 지속시키기 위한 교육은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우리 지역에서 전남대와 조선대, 그리고 광주대 등이 2005년부터 5.18민중항쟁을 독립 교과로 편성하여 교육하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 5.18교육은 우리 지역에서조차 일부 대학에 국한돼 있는 실정이고, 그나마 수강학생들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아래에 대학에서 5.18교육을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광주지역의 초중고 교육과 연계한 대학교육 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대학에 교양선택 과목으로 편성되어 관심 있는 학생들만 수강하도록 하는 것은 5.18교육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5.18과목의 특성상 다양한 자료와 현장체험 등이 요구되고 있는 데 이러한 모든 것을 1주에 2~3시간 하는 한 학기 수업으로 충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초중고에서는 주로 체험교육을 그리고 대학에서는 역사적 의미에 대한 평가교육을 각기 분담하게 된다면 좀 더 체계적인 5.18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 5.18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등교육 과정에서 기본적인 5.18교육이 정립되어야 한다.

2. 교육주체 중의 하나인 학생들의 생각을 먼저 들어봐야 한다.

광주민중항쟁이 결코 가볍게 넘길 역사적 사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잔뜩 엄숙한 태도로 뭔가를 일방적으로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싶은 의욕이 앞선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교육의 대상이면서 주체이기도 한 젊은 학생들은 5.18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먼저 그들의 생각을 묻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 싶다. 그들이 5.18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가장 궁금해 하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바탕 위에서 무엇을 내용으로 구성할 것인가 지에서부터 효과적인 교육방식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눈높이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이제는 효과적인 교육방식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야 될 때이다.

여태껏 5.18광주민중항쟁이 전국화 되지 못한 여러 이유들 중에는 과도한 의미부여도 한 몫 했다고 본다. 이것은 5.18항쟁의 역사적 의의가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의 눈높이를 배려하는 전달방식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이것저것 5.18항쟁의 다양한 의미들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려는 것 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친근하게, 그러면서도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그러자면, 5.18강좌는 한 교수가 혼자 이끌어가기엔 벅찬 과목일 수 있다. 따라서 팀티칭과 초청강연, 현장견학 등 다양한 강의요소들을 투입하여 강의가 역동적이게 할 필요가 있다.

4. ‘5.18광주민중항쟁 교육정책네트워크(가칭)’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제언을 실현하려면 한 두 교수나 일개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5.18재단과 과목담당 교수, 교육청, 초중고교사, 교육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5.18광주민중항쟁 교육정책네트워크(가칭)’ 같은 것을 만들어 5.18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플랜을 만들어 교육을 체계화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5. 우선은 5.18강좌를 담당하는 각 대학의 교수들과 초중고 교사들이 5.18교육에 관한 담론을 교환할 수 있는 공론장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매 학기 말에 5.18교육에 관한 워크숍 혹은 세미나를 정례화 하여 5.18교육에 관한 연구자료와 교육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은우근 교수가 제안한 것처럼 5.18재단이 이에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5.18 교육.연구 학술 집담회> 토론문

‘문학을 통한 5·18 수업,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읽고

서영이

평자가 파악하는 필자의 주된 논지는 다음과 같다.

필자는 5·18 문학작품 읽기를 통해 문화적 실천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그래서 5·18 문학을 교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5·18 문학작품을 활용한 (공식적인) 교육이 전무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5·18을 문학으로 접근하는 것은 다른 시도에 비해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상대적 장점을 갖는다고 본다.

1) 우리는 5월과 관련된 문학 읽기를 통해 ‘읽는 주체’와 ‘텍스트로서의 세계’가 상호작용하는 경험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즉, 그날에 죽어갔던 혹은 살아남은 사람들과 공명(共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며, 나아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과 연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2) 5·18 문학 읽기를 통해 독자는 작가가 겪었던 ‘슬픔’, ‘기쁨’, ‘두려움’ 등을 간접 경험하며,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학습하게 된다. 그러한 학습 결과는 정서의 순화 내지 바람직한 정서적 태도의 함양에도 일정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문화적 실천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주체로 거듭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필자는 5·18 문학 교육에 있어 다음의 것들을 개략적인 것으로 제안한다.

① 5·18 소설의 전개양상에 대한 교수자의 심도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② 5·18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5·18 문학 수업에 있어 ① 학생들에게 작품목록과 함께 관련 평문의 원문을 제공하여 작품의 이해를 돕는 것 ② 수업에서 적절한 질문과 피드백, 논제를 발견해서 토론 수업을 진행하는 것 등을 제안한다.

고백하자면, 평자는 문학에 대한 소양이 깊지 않기에, 문학을 통한 5·18 교육의 방법론을 논한다는 것이 무리임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의 개별적 의견으로 오늘날의 시각에서 5·18 문학 교육이 어떻게 우리에게 재서술 될 수 있는지의 실용적인 물음을 전제한, 평자가 생각하는 문학의 경계와 현실적 역할을 검토하고 더불어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문학작품은 하나의 예술적 기표다. 시간과 공간 속 어느 한 점에 갇혀 사는 인간에게 특정 사태, 혹은 대상에 대한 완전한 이해란 있을 수 없다. 이 점에서 우리의 경험 내용은 모두 '과편적'이다. 작가는 자신만의 과편적인 경험 내용을 작품에 투사하고, 사태 혹은 대상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변형함으로써 '예술'로서의 문학작품을 탄생시킨다. 이는 예술적 기표로서의 문학작품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경험 내용과 시각에 의해 의도적으로 재구성된 산물임을 말해준다. 이제 우리는 문학작품 읽기에서 저자의 의도를 완전하게 읽어내는 일이란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작가가 작품에 자신의 경험을 투사하듯, 독자 역시 작품에 대해 자신의 경험 내용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결국 각기 다른 경험 내용을 가진 독자들 간에도 해석의 일치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자의적이지 않은 까닭은 신체적. 물리적 층위의 공통 기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보고 나의 신체적. 물리적 층위의 이전 경험을 투사하여, 동일한 내용의 아픔은 아닐지라도 그와 유사한 아픔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리의 유기체적 조건은 문학에 있어서 저자와 독자 간의 '의미 기반(meaning base)'을 가질 수 있음을 함축한다.

이러한 인간의 조건을 인정하게 된다면, 5·18에 대한 문학작품을 통한 교육이 1) 신체적. 물리적 층위의 차원에서 고통을 공유할 수 있으며, 2) 그것을 토대로 정신적. 추상적 층위로의 창조적 확장을 시도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5·18을 문학으로 접근하는 것은 필자의 견해대로 문학이 담고 있는 특유의 감각적 묘사들을 통해 5·18에 죽어갔던 혹은 살아남은 사람들과 '피'를 나눌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접근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자의 '공명'은 이전의 유사한 신체적. 물리적 층위의 경험을 전제로 한다. 5·18을 소재로 한 문학 수업에 대해 "교수님이 너무 정치적이다"라거나 겨우 2차시에 해당하는 수업이었음에도 "5·18문학에 지나치게 많은 할애를 한다"와 같은 학생들의 수업평가는 우연일 수 없다. 그것은 결국 직접적 경험이든 간접적 경험이든 공감의 기반이 약하다는 얘기인 것이다.

5·18에 대한 작가의 해석과 조형작업이 가미된 문학작품은 열린 해석의 자리를 차지하지만, 독자의 물리적 층위의 공감의 밀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공유지반이 탄탄할수록

학습자의 정신적, 추상적 층위로의 사유 확장이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개인의 자기 확장이라는 사적 목표와 자유의 확산과 고통의 감소라는 공적 목표가 서로 충돌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5·18 문학 교육은 ‘공감의 밀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1) 내적 접근을 통해 공감대를 높이는 일과 2) 외적 접근을 통해 5.18을 규정하는 일,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일 수 있는지를 학습자 스스로 정리하게 함으로써 일정부분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내적 접근은 일종의 사고실험으로 학습자 스스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주제로 제시하고, 관련 있는 5.18 문학작품의 발췌문을 통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타인에 대한 해악의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혹은 ‘권력의 잔혹성에 대해서’ ‘인권이 유린당했을 때’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되는 5.18 문학작품의 일부를 발췌하여 읽게 하고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져야 할 외적 접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5.18을 규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은 여러 차원의 입체적 탐색을 통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학작품에서 발췌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동원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1) 세계사에서 5.18과 유사한 방식으로 권력이 저지른 수많은 잔혹한 사건들을 포괄적으로 탐색하여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2) 5.18을 여러 입장에서 조명[군부의 시각, 참여자의 시각, 여타 지역인들의 시각 등]하여 가능한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도록 하며, 3) 마지막으로 5.18의 성격을 학습자 스스로 규정하도록 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은 자연스럽게 학습자에게 사적으로는 개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공적으로는 상식과 대화, 연대를 위한 토대를 제공해 주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짐을 짊어지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에게만 주어진 독자적인 기회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사회적, 문화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제를 던져준 셈이며, 학습자는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것을 실현해야 할 중요한 책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5·18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대학을 중심으로-」 토론문

정재호(조선대 정치외교학과)

신자유주의 논리가 한국 교육에 도입되면서 작금의 대학은 전통적인 학문과 교육의 장이라기보다 취업과 자본주의적 기업으로 변모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은 학문과 교육을 도외시한 채, 자본주의적 가치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적 동물을 배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들어 박근혜 정권은 좌파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김인정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야한다며 국정화를 선언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북한 등 극소수 전체주의 국가에 불과하다.

본 논문은 5·18교육의 의의와 목표, 광주지역 대학에 개설된 5·18교과목 강좌에 대한 교육 현황, 5·18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검토 및 대안 모색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지어볼 때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제기하고 있는 5·18 교육의 목표 및 의의와 관련지어 볼 때, 작금의 한국 민주주의가 급격히 퇴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정부당국의 밀어붙이기식 대학구조조정 등으로 5·18교과목 강좌의 지속성마저 불투명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위기상황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과 진전에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필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광주지역 대학에 개설된 5·18교과목 강좌에 대한 교육 현황과 관련해 필자가 언급하지 않은 조선대 사례를 소개하면, 5·18기념재단의 5·18교재 개발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05년 「광주항쟁과 민주사회」 명칭으로 교과목 강좌가 개설되었다. 강좌 규모는 3학점 주당 3시간으로 총 2개 분반에 매학기 총 150여명이 수강하고 있다. 강의방식은 매주 교재 강의와 함께, 영상물 감상을 병행하고 있다.(강의계획서 참조)

필자는 수업내용과 관련해 현재 내용은 배경과 전개과정 등으로 사건사적 접근을 하고 있어 현재적 문제의식이 실종될 수 있고 교육만으로는 역사적 주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실전을 강조하고 있다. 사건사적 접근은 그 한계가 명백하다는 필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5·18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운동사적 맥락과 더불어, 5·18항쟁의 시작과 확대·심화, 해방공동체 등 장과 군의 재진입 등 드라마틱한 상황을 이해를 위해서는 사건사적 이해 또한, 필요하다.

5·18교육을 위한 대학간 협력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교재개발 수준에 머물렀으나 기념재단과 지

역대학과 언론사 등과 좀더 긴밀한 광역 협력을 구축의 필요성이다. 이를 기반으로 교과목 강의 개설 대학의 늘리기, 공동수업 및 공동연구, 체험 학습과 정신계승을 위한 실천적 사업을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

2015학년도 2학기 『광주항쟁과 민주사회』 강의계획서

[교과개요]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국가와 사회를 민주화시킨 발전 동력이었다. 특히 광주민중항쟁은 한국을 정치사회적으로 민주화한 역사적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질적으로 발전의 역사적 분수령으로서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주민중항쟁의 경험과 교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화운동의 지구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교과 주요내용은 항쟁의 배경과 전개과정, 성격과 의의, 영향과 교훈, 정신 계승 등을 중심으로 강의와 영상물 감상을 병행하여 학습한다. 더불어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이론과 함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민주화운동에 대해 배운다.

[교과목표]

이 과목의 목표는 광주항쟁을 중심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가치와 민주화운동의 소중함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등에 대한 문화적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며, 민주의식을 제고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민주화하는데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타 과목과의 연계성]

민주화운동은 사회와 국가의 민주화 실현을 통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복지사회 실현,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세상을 건설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 문제, 정치? 사회? 경제의 민주화, 시민사회운동,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문제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과목들과의 연계적 학습은 5.18을 비롯한 국내외 민주화운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교재 및 참고문헌]

교 재: 최영태 외, 2008. 5.18 그리고 역사, 길.

참고문헌:

5.18기념재단, 2010. 5.18 30년,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색, 5.18기념재단.

나간채, 2012. 한국의 5월운동, 한울.

정재호 외, 2004. 오월꽃 피고 지는 자리, 전라도닷컴.

조희연 외, 2009. 5.18 민중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 한울.

조지 카치아피카스, 원영수 역, 2015, 한국의 민중봉기, 오월의 봄.

평가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기타

[주별 수업계획]

< 제 01주 >

제 목: 강의소개

수업내용: 강의 운영 및 내용 소개

참고문헌:

수업방법: 설명

과 제 물: 없음

< 제 02주 >

제 목: 분단국가와 반공사회 이야기

수업내용: 분단과 냉전, 반공이데올로기와 전쟁, 민주주의

참고문헌: 태백산맥 등

수업방법: 영상물 감상 및 강의

과 제 물: 없음

<제 03주>

제 목 : 민주주의 위기와 4.19혁명 이야기

수업내용 : 이승만 독재와 4·19혁명

참고문헌 : 다큐 4.19혁명

수업방법 : 영상물 감상 및 강의

과 제 물 : 없음

<제 04주>

제 목 : 군부쿠데타와 군사독재 이야기

수업내용 : 군사정권 등장, 개발독재, 정치적 권위주의

참고문헌 : 그때 그사람들

수업방법 : 영상물 감상 및 강의

과 제 물 : 없음

<제 05주>

제 목 : 경제개발의 성과와 위기, 모순에 대한 이야기

수업내용 : 근대화와 경제개발, 개발독재의 모순 폭발

참고문헌 : 전태일

수업방법 : 영상물 감상 및 강의

과 제 물 : 없음

<제 06주>

제 목 : 독재정권 반대투쟁과 민주정부 수립운동 이야기

수업내용 : 유신독재, 반독재 민주화 요구, 부마항쟁

참고문헌 : 유신반대운동, 부마항쟁

수업방법 : 영상물 감상 및 강의

과 제 물 : 없음

< 제 07주 >

제 목 : 신군부 쿠데타와 시민학생들의 저항 이야기

수업내용: 군부의 쿠데타와 광주학살, 학생과 시민들의 저항 등

참고문헌: 5.18다큐

수업방법: 영상물 감상 및 강의

과 제 물: 없음

<제 08주>

제 목 : 중간고사

수업내용 : 5.18사적지답사 이야기

참고문헌 :

수업방법 :

과 제 물 : 없음

< 제 09주 >

제 목: 국가폭력과 시민항쟁 이야기

수업내용: 학살과 저항의 드라마

참고문헌: 화려한 휴가

수업방법: 영상물 감상 및 강의

과 제 물: 없음

< 제 10주 >

제 목: 광주공동체와 광주민주주의 이야기

수업내용: 들불야학과 윤상원, 해방공동체의 활동

참고문헌: 들불야학

수업방법: 영상물 감상 및 강의
과 제 물: 없음

< 제 11주 >

제 목: 역사와 역사 간 이야기
수업내용: 5.18항쟁과 6월민주항쟁
참고문헌: 6월항쟁
수업방법: 영상물 감상 및 강의
과 제 물: 없음

< 제 12주 >

제 목: 역사와 개인 간 이야기
수업내용: 민주화와 개인의 삶
참고문헌: 효자동 이발사
수업방법: 영상물 감상 및 강의
과 제 물: 없음

< 제 13주 >

제 목: 민주시민의 직접행동 이야기
수업내용: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자기 고백
참고문헌: 시대와의 인터뷰
수업방법: 영상물 감상 및 강의
과 제 물: 없음

< 제 14주 >

제 목: 외국의 민주화 이야기
수업내용: 아시아, 중남미 민주화운동
참고문헌: 로메로
수업방법: 영상물 감상 및 강의
과 제 물: 없음

< 제 15주 >

제 목: 기말고사
수업내용:
참고문헌:
수업방법:

과 제 물 :

[기타 홍보사항]

○ 수강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학습 효과도 높이기 위하여 영화와 다큐 등 영상물 감상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 5.18 역사 현장을 직접 체험하기 위하여 5.18사적지 답사 여행도 갑니다.